

한글 전용과 국한 혼용의 언어 심리학적 고찰(I): 읽기 시간, 이해, 기억에서의 차이¹⁾

남기춘***, 김태훈*, 이경인*, 박영찬**, 서광준***, 최기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 시스템공학연구소 자연어정보처리연구부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인공지능연구센터

E-Mail: Kichun@world.kaist.ac.kr

Differences of Reading the Pure Hangul Text and the Hangul Plus Hanja Text in Reading Speed, Comprehension, and Memory

Kichun Nam***, Taehoon Kim*, Kyungin Lee*, Youngchan Park**,
Kwangjun Seo***, Key-Sun Choi***

요약

본 연구는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이 글의 이해 속도, 이해 정도, 내용의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글 전용론과 한자 혼용론은 각각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펼쳐왔다. 먼저 한글전용론의 주장을 살펴보면,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쓰기도 불편해 쉽게 익힐 수 있는 한글을 사용해야 하며, 한자를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순 우리말의 발전이 방해될 받고, 글자 생활의 기계화와 출판 문화의 발달에 있어 한자는 이것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자혼용론의 주장에 따르면, 한자말은 한자로 적을 때 그 의미의 파악이 빠르고 정확하고, 우리말 어휘의 절반 이상을 한자어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자를 가르치는 것이 국어교육의 지름길이고, 우리말에는 동음이의어가 많아서 한글로만 적을 경우 그 뜻을 식별하기 어렵고, 한자는 각 글자가 모두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을 조합하여 새로운 의미의 단어를 쉽게 만들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한글로 쓸 경우 길게 쓰여져야만 하는 것을 짧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자를 쓰지 않으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어 받을 수 없으며 한자를 공통으로 쓰고 있는 동양문화권에서도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글전용과 한자혼용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만큼 우리 나라의 한자에 대한 정책도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속 바뀌어 왔다. 독립이후 정부에서는 법령과 훈령 등으로 모든 공문서에서의 한자사용을 금지하고 일반 사회의 문자 생활에도 한글을 전용할 것을 권고하지만 이 지침은 결국 공문서에만 한정되어 왔고 후에는 이것조차도 유명무실해졌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한자교육 정책도 수차례 변화되어 한글만을 배운 세대가 사회에 나와 여전히 한자가 사용되고 있어 적응에 문제점을 가지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계속되어 온 한글과 한자의 사용에 관한 논쟁을 언어심리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즉, 글을 읽는 속도, 글의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어느 것이 더 기억에 오래 남는지를 측정하여 어느 쪽의 입장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험 결과는 문장을 읽는 시간에서는 한글 전용문인 경우에 월등히 빨랐다. 그러나, 내용에 대한 기억 검사에서는 국한 혼용 조건에서 더 우수하였다. 반면에, 이해력 검사에서는 천장 효과(Ceiling effect)로 두 조건간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글의 읽기 속도가 중요한 문서에서는 한글 전용이 좋은 반면에 글의 내용 기억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한자를 혼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1). 본고는 1997년도 문화체육부의 지원을 받은 '국어정보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자는 한글과 한자이다. 우리의 문자인 한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자가 우리의 문자 생활에서 사용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글자로 표현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쓰게 된 것이다.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고유한 문자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중국의 방언(方言)²⁾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후에 자신들의 고유한 문자체계를 발달시키게 되지만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 왔기 때문에 자국의 문자체계에 한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현상이 비단 동양의 한자 문화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사실상 세계의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 영어도 그 기원은 라틴어에서 출발되었다. 서구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라틴문화권에서도 동양의 한자문화권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음성언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라틴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라틴문화권과 한자문화권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문자체계에 있다. 라틴문화권에서는 모체라 할 수 있는 라틴어와 그것에서 파생된 다른 글자들이 모두 표음문자의 체계인 반면 한자문화권에서는 모체인 한자가 표의문자인데 반해 파생된 다른 문자체계는 표음문자의 체계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의 언어들과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나타내게 된다. 즉, 한자문화권의 여러 나라들은 동일한 단어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권재선, 1989).

우리나라의 글자체계는 독특한 발전과정을 겪어왔다. 자신들이 하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체계가 없어 한자를 빌려다 쓰긴 했지만 그것은 이미 다른 나라의 글자체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전달이나 표현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말의 체계적이고 완전한 문자화에 대한 욕구가 있어 왔고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어 졌다. 남아 있는 기

2). 중국에서는 지역과 민족에 따라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방언이라 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방언은 우리말의 사투리라는 의미가 아닌 그 지역의 언어라는 뜻으로 쓰였고 우리의 사투리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의 방언 가운데에 다양하게 존재한다(송기중의 7인, 1993).

록에 의하면 우리말을 쓰는 데 최초로 쓰인 글자는 향가에서 발견된다. 순수한 우리말을 한자로 빌려 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명이나 지명에서 상당수 발견되고 있으나 이는 일정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점차 쇠퇴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말을 쓸 수 있는 글자체계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뜻부분을 한자로 빌려쓰는 형식이 유행하게 되었다. 즉, 우리말은 내용어와 기능어로 나뉘어져 기능어가 파생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으나 한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뜻을 나타내는 내용어를 표현하는 부분은 한자의 뜻을 옮겨다 쓰고 기능어의 부분은 한자의 음부분을 옮겨 쓴 것이다. 이를 「이두글」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두도 임시적인 방편으로 쓰여 왔기 때문에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고 게다가 상당한 정도의 한자지식을 가지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에게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고 쇠퇴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결국 소수의 지배계급은 계속하여 한자를 이용해 언어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한자의 소리가 우리나라의 음운체계에 이끌려 변화되면서 우리말의 독특한 형태인 문법 형태소를 한문에다 집어 넣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이 「토」이다. 이것은 점차 원래의 한자를 변형시켜 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으며 후에 일본어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권재선, 1989; 허웅³⁾, 1983). 우리의 선조들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말을 글자로 표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우리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문자가 가지는 보수성으로 인하여 왕권에 의해 보급된 한글도 역시 공적인 문자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사사로운 언어생활이나 한문학습의 보조역할만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 한글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두가지의 문자체계는 경쟁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아직까지도 완전한 방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글만을 써야한다는 주장과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왔고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글전용론과 한자혼용론은 각각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펼쳐왔다. 각각의 입장을 지지하는 여러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양측의 대표적인 주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이기중 외 6인, 198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한글전용론에서는 첫째,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쓰기도 불편해 쉽게 익힐 수 있는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자는 문자의 모양이 의미를 표현하므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한자 기호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모두 기억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한글에 있어서는 24개의 음소문자와 음절 형성의 규칙만을 배우면 모든 단어를 읽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다는 것이다.

둘째, 한글이 한자에 비해 읽는 시간이 더 적게 걸린다는 것이다. 한자는 한글과 거의 같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한글에 비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읽는 즉시 소리를 떠올리는 한글이 읽기 능률에 있어서 더 우월하다는 것이다.

셋째, 한자를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순 우리말의 발전이 방해 받는다는 것이다. 한자가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해주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나 많은 한자 어휘들이 한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의 민족글자인 한글을 더 좋은 글자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책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넷째, 글자 생활의 기계화와 출판 문화의 발달에 있어 한글은 그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한자는 이것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한자혼용론의 주장은 첫째, 한자말은 한자로 적을 때, 그 의미의 파악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 분야의 용어에서는 대부분이 한자말이므로 한글로 써 놓으면 그 의미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읽는 시간과도 연결이 되는데, 한글로만 적는다면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워 읽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말 어휘의 절반 이상을 한자어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자를 가르치는 것이 국어교육의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셋째, 한자말에는 동음이의어가 많아서 한글로만 적을 경우 그 뜻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상사'라는 한글 단어는 上士, 上司, 商社, 商事, 喪事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한글로만 쓸 경우에는 이들의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한자는 각 글자가 모두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을 조합하여 새로운 의미의 단어를 쉽게 만들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한글로 쓸 경우 길게 쓰여져야만 하는 것을 짧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

다섯째, 한자를 쓰지 않으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어 받을 수 없으며 한자를 공통으로 쓰고 있는 동양 문화권에서도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글전용과 한자혼용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만큼 우리나라의 한자에 대한 정책도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속 바뀌어 왔다. 독립이후 정부에서는 법령과 훈령 등으로 모든 공문서에서의 5한자사용을 금지하고 일반 사회의 문자생활에도 한글을 전용할 것을 권고하지만 이 지침은 결국 공문서에만 한정되어 왔고 후에는 이것조차도 유명무실해졌다. 또한 중등학교의 한자교육 정책도 수차례 변화되어 한글만을 배운 세대가 사회에 나와 여전히 한자가 사용되고 있어 적응에 문제점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논쟁만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계속되어 온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 논쟁을 언어심리학적인 연구를 통해 평가해 보려고 시도 되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양측은 제각각 자신들의 주장하는 논리가 있다. 따라서, 판단의 한 준거로 글 이해의 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즉, 글을 읽는 속도, 글의 의미 이해 정도, 글의 내용 기억 정도 등을 측정하여 어느 쪽의 입장이 더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 험

방 법

피험자 피험자는 서울소재 4개 대학교 학생으로 총 42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피험자는 각 조건에 14명씩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실험재료 실험재료로는 심리학의 전공서적과 시사글에서 각각 일정한 길이의 5~6개 정도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18개 단락의 글을 사용하였다. 최대한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장의 길이를 축소시키거나 문장을 나누기도 하였다. 각각의 글은 문교부지정 기초수준한자 1800자의 범위 내에서 한글, 한자, 한글(한자)로 변형되었다.

실험설계 독립변인은 Text의 제시방법과 종류이다. Text 제시의 수준은 3가지 방법 - 한글, 한자, 한글(한

자)·으로 나누었고 종류는 시사글과 심리학글이 사용되었다. 측정하는 종속변인은 문장제시 때부터 컴퓨터 자판의 Space Bar를 누를 때까지의 반응시간, 제시된 글을 읽은 후 그 글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제시된 글에 대한 기억검사이다. 피험자는 각각 14명씩 세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 한글 조건, 한자 조건, 한글(한자)조건을 무선적으로 할당하였다. 각 피험자에게는 시사글과 심리학글이 한가지 제시수준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Text의 제시방법은 피험자간 변인이며 종류는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피험자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한자 지식의 정도와 제시되는 실험재료에 대한 과거 지식의 정도가 피험자의 이해도와 읽기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모든 실험이 끝난 후에 과거 지식과 한자 지식의 개인차를 측정하였다. 이들 지식 정도는 후의 자료분석에서 공변인으로 사용하여 그 영향을 제거하였다.

실험절차 각 피험자는 시사글 18개와 심리학글 18개의 글로 구성된 본 시행에 앞서 연습시행을 하였다. 각 조건·한글 조건, 한자 조건, 한글(한자) 조건·에 할당된 피험자는 각각의 수준으로 제시된 연습글로 연습시행을 하였다. 각 글의 제시는 피험자에게 “예'key와 '아니오'key에 손가락을 올려 놓고 준비가 되었으면 Space Bar를 누르시오”라는 지시문으로 시작했다. Space Bar를 누르면 Monitor 화면의 중앙에 각 단락의 글이 어절 수준으로 제시된다. 제시된 어절을 읽고 난 후 Space Bar를 누르면 다음 어절이 제시된다. 피험자에게 평소에 글을 읽듯이 화면에 제시되는 글을 자연스럽게 읽으라고 지시했다. 어절이 제시되는 순간부터 Space Bar를 누르는 순간까지의 ‘읽는 시간’이 측정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 단락의 글이 모두 제시되고 나면 Monitor 화면에는 이해검사문제가 제시된다. 이해검사문제는 제시된 글의 내용에 대한 문장으로 피험자는 제시된 글과 이해검사문제의 일치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는 그 질문의 내용이 방금 전에 읽은 단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일치하면 ‘예’키를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오’키를 누르는 것으로 반응하되, 반응시간이 측정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질문에 반응한 후에 다음 단락의 글이 제시된다.

실험이 끝나면 피험자들의 시사수준과 심리학의 사전 지식정도 그리고 한자의 수준을 측정하는 검사가 실시된다. 시사수준과 심리학 지식 측정검사는 각각 25 문항으로 만들었으며 한자수준측정검사는 모두 120개의 한자가 쓰였으며 피험자는 제시된 한자의 음을 읽고 쓰게 하였다.

실험이 모두 끝난 다음, 일주일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피험자들에게 실험시 사용되었던 글에 대한 기억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시 기억검사를 실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기억검사의 항목은 실험재료에서 무선적으로 15문항을 추출하고 그와 유사한 실험에 제시되지 않은 다른 15문항을 뽑아 30문항으로 하였다. 실험프로그램으로는 ‘Context(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작성된 것)’가 사용되었다.

결 과

통계분석은 ‘읽는 시간’, ‘이해도’ 그리고 ‘기억 정도’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사용하고 3가지 수준의 제시조건과 2가지 종류의 문장을 독립변인으로 가지는 변량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상식과 심리학 지식 정도와 한자실력을 공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읽는 시간'에 대한 분석

1) 3가지 조건의 피험자별 분석 : 제시된 글을 읽는 시간은 시사글과 심리학글에 대해 피험자별로 나누어서 변량분석을 하였다. 이 변량분석은 모든 문장 전체를 기초로 실시하였다. 표<1-1>에서는 읽는 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표<1-2>와 표<1-3>에서는 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1-1> 시사글과 심리학글의 읽는 시간의 전체 평균

	시사글	심리학글
한글조건	560(548)	571(585)
한자조건	1084(945)	982(863)
한글(한자)조건	704(642)	634(626)

()안은 표준편차

표<1-1>에서 볼 수 있듯이 시사글과 심리학글 모두 한글조건이 다른 조건에 비해 읽는 시간의 평균에서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자조건에서는 한자로 변형된 항목과 한글 그대로 제시된 항목간의 반응에서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 표준편차가 커지게 되었다.

표<1-2>에 시사글에 대한 읽기 시간의 변량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1-2> 시사글의 읽는 시간 피험자별 분석

변량원	자유도	SS	MS	F	P
공변인	2	32860	16430	.6	.6
한자지식	1	17050	17050	.6	.4
사전지식	1	19126	19126	.7	.4
텍스트제시수준	2	388772	194386	7	.01
총변량	41	1546094			

텍스트의 제시수준은 한글조건, 한자조건, 한글(한자)조건을 말한다. 시사글의 전체 글에 대한 읽는 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한자지식이나 사전지식은 실험시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텍스트의 수준, 즉, 각 조건에 따른 읽는 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 37) = 6.95, p < 0.01$).

표<1-3>에 심리학글의 읽는 시간에 대한 변량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1-3> 심리학글의 읽는 시간 피험자별 분석

변량원	자유도	SS	MS	F	P
공변인	2	1920	961	.03	.6
한자지식	1	1916	1916	.07	.4
사전지식	1	63	63	.00	.4
텍스트제시수준	2	382995	191498	7	.01
총변량	41	1448324			

심리학의 전체 글에 대한 읽는 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한자지식이나 사전지식은 실험시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텍스트의 제시수준에 따른 읽는 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 37) = 7.01, p < 0.01$).

표 <1-1>에 나타나 있듯이, 시사글과 심리학글 모두 한글조건 피험자의 읽기시간이 한자조건 피험자에 비해 빨랐으며 다음으로 한글조건이 빨랐다.

2) 두 가지 글에서 제시된 항목의 단위로 읽는 시간에 관한 분석: 각 피험자의 항목별 반응시간을 바탕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변량분석표가 표 <1-4>와 표<1-5>에 제시되어 있다.

표<1-4> 시사글의 항목별 읽는 시간 분석

변량원	자유도	SS	MS	F	P
텍스트제시수준	2	111788016	55894007	159	.01
전차	2085	757566439	363341		
총변량	2087	869354455	416557		

시사글의 항목별 읽는 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텍스트제시수준에 따라 읽는 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 2085) = 159, p < 0.01$).

표<1-5> 심리학글의 항목별 읽는 시간 분석

변량원	자유도	SS	MS	F	P
텍스트제시수준	2	111788016	55894007	158	.01
전차	2085	757566439	363341		
총변량	2087	869354455	416557		

또한, 심리학 글에서도 항목별 읽는 시간을 변량 분석한 결과 텍스트제시수준에 따라 읽는 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 2085) = 159, p < 0.01$).

사후 집단별 분석에서, 각 글의 제시되는 항목단 위별 변량분석에서도 한글조건 항목이 읽는 시간에서 다른 조건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3) 각 글에서 한자 혹은 한글(한자)로 변화시킨 항목에 관한 분석: 각 조건에서 실험시 제시되는 글은 아래와 같이 각각 한자 조건과 한글(한자)조건으로 변형되었다. 이렇게 변형된 항목들만 추출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1-6>에는 변화시킨 항목의 각 조건별 평균값이 제시되어 있고 표<1-7>과 표<1-8>에는 각 글의 변량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예).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계층간의 이해대립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번 選舉에서 드러난 階層간의 利害對立도 작은 問題가 아니다.

이번 선거(選舉)에서 드러난 계층(階層)간의 이해대립(利害對立)도 작은 문제(問題)가 아니다.

표<1-6>한자로 변화시킨 항목의 각 조건별 평균값

	시사글	심리학글
한글조건	510(351)	526(434)
한자조건	1530(973)	1295(890)
한글(한자)조건	745(550)	634(507)

()안은 표준편차

표<1-6>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장 전체를 분석한 것보다 한자글의 읽는 시간 평균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체의 문장에서 한글항목이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간이 길어진 것이다. 표<1-6>에서도 한자 조건인경우에 다른 두 조건에서 보다 읽는 시간이 더 길었다.

표<1-7> 시사글에서 한자로 변화시킨 항목의 읽는 시간 분석

변량원	자유도	SS	MS	F	P
텍스트	2	209608590	104804294	499	.01
제시수준					
전차	1047	219883635	210013		
총변량	1049	429492225	409430		

변량분석결과 시사글에서 한자로 변화시킨 항목의

읽는 시간에서 각 조건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 1047) = 499, p < 0.01$). 표<1-6>에서 볼 수 있듯이 한글 조건에서 가장 빨랐고 다음으로는 한글(한자) 조건에서 빨랐다.

표<1-8>에 심리학글에서 한자로 변화시킨 항목의 변량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1-8> 심리학글에서 한자로 변화시킨 항목의 읽는 시간 분석

변량원	자유도	SS	MS	F	P
텍스트제시수준	2	1367194108	68359554	450	.01
전차	1173	178032027	151774		
총변량	1175	314751135	267873		

변량분석결과 심리학글에서 한자로 변화시킨 항목의 읽는 시간에서 각 조건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 1157) = 450, p < 0.01$).

이해도'에 대한 분석

제시되는 각각의 글을 읽은 후, 실시되었던 이해도검사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2-1>과 표<2-2>는 각 글에서의 이해도에 관한 변량분석결과를 나타내어 주고 있다.

표<2-1> 시사글에서 이해도에 대한 분석

변량원	자유도	SS	MS	F	P
공변인	2	12	6	1.5	.2
한자지식	1	1.6	1.6	.4	.5
사전지식	1	11	11	2.7	.1
텍스트제시수준	2	1.7	0.9	.2	.8
총변량	41	162.7			

표<2-2> 심리학글에서 이해도에 대한 분석

변량원	자유도	SS	MS	F	P
공변인	2	22	11	2	.1
한자지식	1	.3	.3	.06	.8
사전지식	1	19	19	3.8	.06
텍스트제시수준	2	5.7	.9	.02	.6
총변량	41	214			

이해도에 관한 변량분석에서는 3가지 조건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각 글의 사전지식 정도가 이해도 검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글에서 사전지식의 정도가 높을 경우 그만큼 그러한 종류의 글에 대한 친숙도가 높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이해도 점수가 영향을 받은 것이다.

기억검사에 대한 분석

실험 후, 일주일정도가 지난 다음 실시한 기억검사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억 검사로는 문장에 나타났던 단어 25개와 나타나지 않았던 25개의 단어를 제시하여 재인검사를 실시하였다. 기억검사에서는 평균을 사용하지 않고 중간값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험자 중 특별히 점수가 높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극단치의 영향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표<3-1>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 조건에서 가장 우수하였고 한글(한자)조건에서 가장 저조 하였다. 한글(한자) 조건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타난 사실이 흥미롭다.

표<3-1> 기억검사의 중간값

	시사글	심리학글
한글조건	20	17
한자조건	21	19
한글(한자)조건	19	15

표<3-2> 텍스트 종류와 제시 조건에 따른 기억에서의 효과

변량원	자유도	SS	MS	F	P
텍스트제시수준	2	58	29	2.7	.8
글의종류	1	271	271	43	.01
글의 종류에 따른 텍스트제시수준	2	8.7	4.3	0.7	.5
오차	39	420	10.8		

기억검사의 분석결과 3가지 텍스트 제시 수준의 효과가 유의미 하지않았다 ($F(2, 39) = 2.68, p<0.10$). 그러나, 평균을 살펴보면, 한자 조건에서 기억 수행이

가장 우수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기억 검사 항목과 피험자 수를 증가시키면 더 명확한 조건간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심리학 글에 비해 시사글이 기억검사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글의 종류에 따라 각 조건에 할당된 피험자들의 점수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글읽기에 관한 효율성의 측면에서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을 조사하였다. 글의 종류로는 시사적인 글과 심리학적인 글을 실험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글의 제시 조건은 한글조건, 한자조건, 한글(한자) 등이었다. 실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글을 읽는 시간, 이해도, 문장에 나타났던 단어의 기억검사를 사용하였다.

먼저 읽는 시간에서는 글의 종류에 관계없이 한글조건에 읽는 시간이 한자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빠르게 나타났으며 한글(한자)조건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났다. 한글(한자)조건이 한자 조건 보다 빠르게 읽는 이유는 대부분의 피험자가 한글을 위주로 읽고 단지 그 의미가 분명치 않을 때에만 병기된 한자를 읽어 한글조건과의 속도에서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 된다.

두 번째로 이해도에 관한 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각 조건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Ceiling Effect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해도검사를 위해 제시된 문장들이 각 조건에 할당된 피험자들의 이해도를 측정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각 조건에서 점수가 비슷하게 나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억검사의 경우에 시사글과 심리학글 모두 한자조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수하지는 않았지만 평균 자료를 살펴 보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자의 경우 심층 규칙 문자(Deep Orthography)를 가지게 되어 반드시 Lexical System을 거쳐서 읽게 되므로 의미의 처리가 분명하며 피험자들이 다른 조건의 피험자들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읽었기 때문에 기억에 더 오래 남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시사글에 비해 심리학글에서 각 조건간에 더큰 차이가 난 것은 피험자들이 시사적인 글에 비해 심리학 글을

더 내용 중심으로 처리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남기춘, 1995; 이홍재, 남기춘, 김현택 이만영, 1997).

위와 같이 시사글과 심리학글에서 각 글이 한글 혹은 한자로 쓰였을 때의 효율성에 관해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한글조건이 효율성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한자어에 관하여 사람들이 한자로 쓰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뜻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혼동이 되기 쉬운 단어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어의 경우에 한자를 병기해 주면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자로 변화된 경우에, 사용된 한자가 문교부지정 고등학교 기초수준한자 1800자의 범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험자들이 한자를 읽는데 어려움을 나타낸 것은 우리의 교육이 점차 한글위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시사글이나 심리학글이 아닌 다른 글, 예를 들면 소설이나 수필 등과 법조문이나 혼동하기 쉬운 학술용어에서의 한자사용은 달라야 할 것이다. 소설이나 수필 등 문학·예술 작품에서 한자가 사용된다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반면, 법조문이나 학술용어에서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 한글단어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법해석이나 학술연구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볼 때, 한글만을 쓰는 것은 분명 우리가 따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글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도 우리글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 우리글로 받아 들여야지 단순히 외국 말을 받아들인다거나 한자로 바뀐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잊혀져 버린 우리말을 계속해서 계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재선 (1989). 간추린 국어학 발전사. 우골탑.
남기춘 (1995). 한국어 단어 재인: 문자 구조가 달라지면 단어 재인도 달라지는가? 1995년도 하계 실험 및 인지심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이홍재, 남기춘, 김현택 (1996). ERP에 나타난 한글, 한자, 영어 단어 재인의 차이.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7, 4, 111-140.

송기중 외 7인 (1993). 세계의 언어정책. 국어학회 편. 태학사.

이기중 외 6인 (1983). 한국 어문의 제문제. 일지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국어교육과 漢字문제.

허웅^a (1983). 국어학. 샘문화사.

허웅^b (1983). 언어학 개론. 샘문화사.